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 평화의 도구

(제 168 호)

07년 8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이 세홍(바오로),sfo (562)860-6930  
 \*사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739-4226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wy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 형제회 소식

###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8월 5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 ■ 형제회 사목적 방문

오늘 8월 26일(월례회)은 지구형제회에서 저희 형제회 사목적 방문하는 날 이며 Rock 회장께서 방문하십니다.

### ■ 월례회 강의

-지난 7월 22일 월례회에 김재섭(요한 비안네) 신부님께서 방문하셔서 “형제회 기본적 생활”에 대하여 강의를 해 주셨고 또 미사를 집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1월 월례회에도 김재섭 신부님께서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월례회 강의는 양성반 출석과 관련이 있으므로 꼭 참석을 요합니다.

### ■ 새 양성교육 지침

미국 지구 형제회에서는 형제회 월례회 진행과 양성 교육을 통일하고 월례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 월례회 모임은 온 회원이 다같이 모여 성가와 공동기도 이후에 20-30분간의 주제 강의를 매달 선택된 회원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여러 조별로 나누어 토론한 후에 각 조별로 발표를 한다. (약 2시간 30분-3시간)

둘째: 각 양성반은 다른날 또는 월례회 이외의 시간에 공부한다. 본 형제회는 월례회 전체모임이 끝난 후에 1시간 가량 양성 공부를 한다.

\* 월례회 시간표 \*

12:30~13:00 - 형제회 친교 시간

13:00~15:00 - 형제회 전체 기도 및 강의  
토론, 조별 발표시간

15:00~16:00 - 각반 양성 교육 (종신서약자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같이 공부하길권면 함)

## ■ 월보 담당

형제회 월보 제작을 담당할 분을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을 평의회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회원 소개- 10번째】

## 나는 누구 일까요 ?

저는 70대이며 1991년도에 형제회에 가입했습니다. 형제회 가입한 동기는 성당 구역 모임에 참석했다가 프란치스코회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취미는 독서와 컴퓨터 그리고 사진찍기입니다. 나의 성격은 틀린 것에 대해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성격이라 오해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빠르지만 행동에는 느립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는 성인의 영성과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제회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돕는 삶을 배우며 사는점 입니다.

형제회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는 영성 공부나 회칙을 더 알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점입니다.

\*\*\*\*\*

【러시아 선교】

## 서품 10주년의 황당한 이야기

김 웅철(도미니꼬) 신부

T 평화와 선

"이 스프는 어떤 종류의 스프입니까?"

"음...이것 참.."

아니나 다를까, 각종 고기가 들어있는 스프이기에 당연히 닭고기가 들어간 스프였다. '가는 날

이 장날' 이라더니,,

"난 닭고기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요"라는 말을 하고는 저만치 밀어놓았다. 닭을 먹지 못하는 내가 늘 간단히 말하는 변명 아닌 변명이었다. 주인공은 나 같은데, 나를 빼고는 모두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맛있게 먹는 그들을 향해, "난 역시 좋은 목자다. 다른 양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주고, 난 굶고 있으니"

하필 닭고기가 든 스프가 나온 후, 주 음식으로 나온 것이, 닭고기였다.

'이것 참...'

축하의 노래가 나오고 오늘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안, 서비스하는 숙녀가 다가오더니, 혹시 안에 들어가 다른 음식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친절 한 말을 해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식당 입구에 쓰여진, '오늘의 메뉴'에 있는 닭고기 이외에는 다른 음식이 주문되지 않는, "낮에는 레스토랑, 밤에는 디스꼬장"인 호텔 식당이었던 것이다. 하필 이곳을 늘 지나가면서,일전에 한번 식사를 하고 싶었던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안 순간 허탈하였다.

10주년 기념 식사하는 자리에 먹지도 못하는 닭고기 파티라..멋진 '기념식'이었다.

다행히 관심을 보여 준, 식당 지배인의 배려로 다른 스프와 함께, 고기와 함께 약간 오래된면 종류가 나왔다. 그래도 어디냐..닭보다야 낫지 않는가!!!!!!

우리는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에 남을 닭고기 파티(?)로 나의 서품 10주년 행사를 마쳤다.

☞ 회원 소개-이규성(바오로) 형제

우수리스크에서

【영 성】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2) (Saint Francis of Assisi)

### 생활양식으로서의 복음(The Gospel as a way of life)

그러한 회개 이후, 프란치스코는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들만을 이행하고는 더 이상 살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을 초월하고, 법보다 훨씬 더 멀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삶과 동화되는 정도로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도전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간성을 넘어 오르도록 해 주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이 지닌 집합적인 죄악을 넘어 오르도록 복음이 문을 열어준 그 가능성들이 프란치스코의 영혼 안에 있는 현을 너무도 힘차게 진동시키어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리던 것이다."

### 계속 되는 육화 (The Continuing Incarnation)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육화는 단순히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역사적인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육화는 과거에 이루어 졌지만 또한 현재에도 일어납니다.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도록 계속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수임 받습니다. 지극히 독특한 표현으로 프란치스코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분을 모실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표양을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거룩한 행실로써 우리는 그분을 낳게 됩니다."

### 형제애 (Brotherhood)

프란치스코의 유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구절은 아마도 그가 그의 첫 번째 제자들과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시작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를 주셨습니다." 계급 구분이 경직화되고 수도원의 규칙에서조차 제 2계급의 시민들에겐 평수사 직분만 허용되었을 때, 또한 주인과 하인 귀족과 농민, 특권 상류층과 평민하층의 계급이 있었을 때, 또 의혹과 불신이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그 시대의 하나의 질서가 되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적어도 자신의 수도회에서는 참된 형제애가 아직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수도회를 작은 형제들의 회라고 이름지었을 때, 형제애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에 그리스도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물론 자신도 도전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 작음 (Minority)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수도회를 형제들의 수도회로 보았다면, 그는 또한 그것을 특별히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소수 혹은 작음이란 말이 가난하고 무력하며 침묵을 지켜야 하는 소수 그룹에 대해 말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작음은 권력과 특권과 지위에 대한 추구와의 절연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무력하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축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들, 곧 성서가 말하는 "야훼의 가난한 자"처럼 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봉사 받지 않고 봉사하려는 욕망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나누며,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며 서로 유용한 자가 되려는 욕망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는 욕망, 즉 인간의 가장 악한 경향을 극복 하려는 욕망입니다.

### 가난 (Poverty)

재산, 풍요 그리고 개인재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들은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형제애 및 하느님과의 일치에의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그 삶이 돈과 돈으로 살수 있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보다는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연질서의 가장 나쁜 악용 가운데 하나인데, 대단히 빠르게 개

인을 비인간화어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물건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확실히 그런 것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 인격주의 (Personalism)

채스터튼(G.K. Chesterton)은 프란치스코의 인격주의에 관해 아마도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군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더 사실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존경했고, 이는 그가 사람들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들 모두를 존경했음을 의미한다. 그에게 놀라운 인격적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교황으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술탄으로부터 숲 속에서 기어 나온 누더기 옷을 입은 강도에 이르기까지 불타는 그 갈색 눈동자를 들여다 본 사람은 누구나 프란치스코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신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진지하게 대하였습니다."

### 기도 (Prayer)

기도, 특히 관상기도는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해서 한때 그는 세상에 대한 사도직 사명을 포기하고 관상 생활로 은퇴하려는 유혹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 해주셨듯이 그의 임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굴에서건 장터에서건 라 베르나 산에 있는 백작의 저택에 있건, 홀로 있건 형제들과 함께 있건 노동하는 중에 있건 간에, 프란치스코는 늘 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관상기도를, 때로는 자유기도를, 때로는 형제들과 함께 공동기도를, 때로는 노동기도를 바쳤습니다.

### 고통의 수용 (Acceptance of Suffering)

고통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모든 대가를 치루고서 피해야 하는 악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경외심을 가지고 고통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다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프란치스코는 고통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고통의 남은 부분을 나의 몸으로 채우겠다"고 했듯이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

### 【목 상】

## 오드리 햅번의 유언

숨을 거두기 일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드리 햅번은 다음의 시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할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 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 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한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사람을 돕는 손이다.